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중 FTA 체결이 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on Korea and China's Agricultural Trade**

제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라행

2015년 8월

한·중 FTA 체결이 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용 완

라 행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8월

라행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5년 8월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제2장 한·중 FTA 추진 현황과 전망.....	4
제1절 한·중 FTA 추진배경	4
제2절 한·중 FTA 필요성	6
1.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7
2.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7
3.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점	8
4. 정치·외교적 영향력 강화	9
5. 양국의 사회복리를 증가	10
6. 양국의 산업구조조정유리	10
제3절 한·중 FTA 추진현황	10
제4절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	12
1. 중국의 입장	13
2. 한국의 입장	15

제3장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	19
제1절 한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	19
1. 한국의 농산물 무역 동향	19
2. 한국 농산물의 품목별 무역 현황	21
3. 한국 농산물의 국가별 무역 현황	25
제2절 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	29
1. 중국의 농산물 무역 동향	29
2.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무역 현황	30
3. 중국 농산물의 국가별 무역 현황	33
제3절 한·중 FTA 농업부문 주요 쟁점	39
1.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마찰	39
2. 한국입장의 쟁점	41
3. 중국입장의 쟁점	43
제4장 한·중 FTA 체결이 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45
제절 한·중 FTA가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45
1. 무역장벽	46
2. 덤핑과 반덤핑의 증가	47

제2절 한국 농업에 대한 영향.....	48
1. 한국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	48
2. 한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	49
제3절 중국 농업에 대한 영향.....	51
1. 중국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	51
2. 중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	53
제5장 한·중 FTA에 따른 양국의 대응방안.....	54
제1절 한·중 농산물 무역의 미래 발전 추세	54
제2절 한국의 농산물 무역 대응방안.....	55
1.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의 발굴.....	57
2. 식품안전검사의 협력체계 구축.....	57
3. 농외소득 증대.....	58
제3절 중국의 농산물 무역 대응방안.....	59
1. 기술 장벽.....	59
2. 농산물 안전성.....	60
3. 대 한국 농업 협력과 교류 강화.....	60
제6장 결론.....	62
참고문헌.....	64
ABSTRACT.....	69

표 및 그림 목차

<표 2-1> 한국의 FTA 추진현황.....	4
<표 2-2> 한·중 FTA 추진현황.....	11
<표 2-3>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 중국 수출 분포.....	17
<표 3-1> 한국 농산물 수출 현황.....	20
<표 3-2> 한국 농산물 수입 현황.....	21
<표 3-3>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22
<표 3-4>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25
<표 3-5>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출현황.....	26
<표 3-6>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입현황.....	28
<표 3-7> 중국의 농산물 수출 현황.....	30
<표 3-8> 중국의 농산물 수입 현황.....	30
<표 3-9> 중국의 곡물 수출입 현황.....	31
<표 3-10> 중국의 채소 및 과일의 수출입 현황.....	32
<표 3-11> 중국의 식용유지 및 식용식물유 수출입 현황.....	33
<표 3-12> 중국 곡물 수출 현황.....	34
<표 3-13> 중국의 곡물 수입 현황.....	34
<표 3-14> 중국 과일 수출 현황.....	35
<표 3-15> 중국 과일 수입 현황.....	36
<표 3-16> 중국 채소 대륙별 수출 현황.....	37
<표 3-17> 중국 채소 수출 현황.....	38
<표 3-18> 완전관세철폐가 한·중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42
<표 3-19> 2010년 한·중 양국 농산물관세비교	44
<그림3-1> 한국의 곡물 수입 현황.....	2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또한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상에 참여하는 동시에 점차 양자간 협상인 FTA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중국은 ASEAN,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으며, 그 외에도 몇 개의 FTA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 중에는 한·중 FTA를 포함 되어있다.

한·중 양국은 FTA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의 논의를 해왔다. 2007년 4월, 중국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였다. 방한 기간 중 원자바오는 한·중 양국 경제와 무역의 합작을 심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였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양국 FTA 체결에 따라 중국 상품의 한국 시장 장벽 제거를 추진시키고 쌍방 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이것은 한·중 FTA 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07년 6월 한·중 양국은 정부, 산업, 학계가 공동 진행시키는 한·중 FTA 연합 연구를 시작했으며, 2010년 5월, 원자바오 총리가 다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양국은 한·중 FTA 관산학(정부, 산업, 학술)연합연구를 마치는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양국의 경제무역부 장관이 양해각서를 서명했다. 양국은 한·중 FTA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한·중 FTA체결이 양국 경제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중 양국은 경제 규모나 구조가 다르다. 중국은 개발대상국으로서 자원, 노력과 시장 등에서 비교적 높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은 기술과 자본 쪽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즉 한·중 양국은 다른 경제구조로 인하여 양국 사이에

비교적 강한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한·중 FTA 수립은 양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문헌에서 양국 FTA 수립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예측하고 있으며,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농산물분야는 한·중 양국 모두 크게 중시하는 영역으로써 양국에 기회요인이 되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중국 농산물은 자연자원과 노동력 쪽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에서 강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생산량과 농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이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한·중 FTA를 주장하면서도 FTA에 따른 농산품 시장의 개방을 한국 농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우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국과 중국, 양국의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대응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한·중 FTA 체결이 양국 농업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한·중 FTA에 관한 보고서 및 한국무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중국농업부, 중국통계국 등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자료와 최근 발표된 국내·외 논문집 및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하고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은 FTA에 대한 양국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한·중 FTA의 논점 중 한·중 FTA 체결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한·중 양국 FTA에 대한 입장도 분석했다. 한·중 FTA의 추진 배경을 분석한 후,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 현황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의 추진 전략과 동기를 분석하였다.

제3장은 한·중 양국 농산물 무역의 현황으로 한국과 중국 농업의 현황을 각각 분석한 후, 한·중 양국 농산물 무역의 보완성과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은 한·중 FTA가 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은 비슷한 점이 있는 반면 국가 간에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받은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문제들 고려해 보았으며, 주요 분쟁들을 선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은 한·중 FTA에 따른 양국 농업 대응방안이다. 4장에서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제6장은 논문의 논지를 정리하여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제2장 한·중 FTA 추진 현황과 전망

제1절 한·중 FTA 추진배경

2000년대 진입 이후 양국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다자간 통상규범에 의존해 오던 통상전략에서 FTA를 주요 통상정책 수단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리적 인접여부는 물론 경제 수준의 차이와도 상관없이 다양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06월 01일 현재 GATT/WTO에서 발효 중인 FTA는 세계적으로 285개를 차지하고 있다.

<표2-1>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발효	한-칠레	한-페루	한-호주
	한-싱가포르	한-EFTA ¹⁾	한-ASEAN
	한-인도 CEPA ²⁾	한-EU	한-미국
	한-캐나다	한-중국	
서명/협상 타결	한-콜롬비아	한-터기	한-뉴질랜드
협상중	한-베트남		
	한·중·일 RCEP ³⁾		
공동연구 (여건조성중)	한-일본	한-인도네시아	
	한-러시아	한-MERCOSUR ⁴⁾	

자료: 외교통상부, 2015, <http://www.fta.go.kr/>

그동안 GATT/WTO 중심의 다자간 교역 체제에만 의존하여왔던 한국은 1990

-
- 1)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핀란드의 7개국 간에 자유무역지역이다.
 - 2)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이다. 명칭은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 3) 2011년 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2013년 5월, 9월/ 2014년 1월, 3~4월, 6월, 12월/ 2015년 2월)
(*RCEP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 4)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

년대 중반 이후부터 양자주의로 대표되는 FTA를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표 2-1>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을 이루고 있다. 한·중 FTA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초단계라 할 수 있다. 한·중 FTA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의 주도권 확보의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에 획기적인 연결 고리를 구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중·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 체결 등의 초석으로서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 간 지역무역협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아세안 국가들과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며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즉, 과거 일본에 비해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은 자국에 매우 불리한 농업부문의 선자유화조치(EHP: Early Harvest Program)와 같은 과감한 경제적 양보를 감수하면서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추진, 타결시켰으며, 일본에 앞서 'ASEAN+1, 메커니즘을 주도하고 있다. 즉,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과의 통상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면서 능동적인 대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중국과의 FTA를 통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은 거대한 중국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오늘날의 급변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보다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 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자국의 국익확보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들의 대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도 대 중국 통상정책에 있어 적극적이며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중 FTA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하여 양국 간의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실질 GDP 증대, 후생수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하여 역내 투자환경 및 경제제도가 개선되는 가운데 투명성이 보장되

어 협정 상대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타국에 대해서도 대외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신뢰도 제고를 통해 역내 생산거점 확보 및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늘어난 외국 투자는 다시 고용창출, 세수증대, 기술이전, 선진 경영기법 전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후생증대 등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한·중 FTA가 동아시아 FTA나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지만 양국의 GDP 증대와 경제 후생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 발표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점에서 한·중 FTA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요구되어 진다.

제2절 한·중 FTA 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한 경제교류 발전을 이룩하였고,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선 한국의 경우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경제성장의 효과를 가져왔고, 중국 투자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원자재 및 소비재의 수입으로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유지 강화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산 농수산물 및 소비재 수입은 물가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저소득층의 생활의 유지 내지 개선효과를 가져다 주었다.⁵⁾ 반면 중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문제의 해결과 고용창출, 한국의 고도화된 선진기술의 습득 등의 효과를 획득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한·중 간에 무역 및 투자에서 상호의존관계가 지속되면서, 그로 인한 무역수지 불균형과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양국 간의 경제교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향후 양국의 경제 교류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며, 한·중 FTA에 대

5)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7. p.146.

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크면서 동시에 통상마찰에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구축되는 것은 상호간의 통상마찰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주의 역제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안정적인 중국시장의 확보와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약13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수준의 향상되고 있는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매력적인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2000년도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2천348달러에 불과했으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2010년 8월 1인당 국민소득이 6천914달러로 한국의 4분의 1 수준까지 육박했으며, 앞으로 2격차가 많이 좁혀 질 것으로 예견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내수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워지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수출만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일본, 미국, EU, ASEAN등 거대시장과의 FTA는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WTO가 출범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보다 강해진 개도국과 NGO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세계화의 부정적인 면이 크게 부각되어 새로운 다자간협상(도하 개발어젠다 : Doha Development Agenda)은 여러 차례 시련을 겪게 된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대국들은 WTO/DDA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자국시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차선책으로 일부 지역적인 시장이기는 하지만 몇 개국들만이라도 뭉쳐 자유무역정책의 이점을 얻기 위하여 포괄적인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을 서둘러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는 지역주의의 확산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는 경제적 손해는 물론, 외교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주요 경쟁국이 FTA를 통해 주요 시장을 확보해나갈 때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시장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2005년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0.2%, 대만은 8.6%를 차지하면서, 대만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었으나, 중국과 대만의 ECFA 체결로 인해 앞으로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4월 내 놓은 ‘중·대만 ECFA의 협상 추이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산업품목은 중국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협정 체결로 관련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FTA가 확대 되는 경우, 수입이 한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의 훼손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의 대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도 FTA를 포함한 적극적인 중국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점

현재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이며,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중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FTA에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근래에 들어 눈부시게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성장규모에 귀추가 주목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타 국가에게 큰 관심사로 다가오며, FTA 추진의 원동력이 된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국은 지리적으로 상당한 장점을 가진다. 지리적인 인접성은 향후 교역에 있어 물류비의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

질 수 있다. 현재 중한의 관계는 중일의 관계에 비해서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과 상호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한 FTA의 추진은 앞으로 EU 경제통합의 과정에서처럼,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4. 정치·외교적 영향력 강화

오늘날 각국의 FTA의 전략을 보면,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가나 지역 간 FTA 체결은 일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정치적 고려와 외교안보적 이익 그리고 국내 정치적 통합 이익의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⁶⁾ 자유무역협정은 전략적 측면에서는 국내의 경제개혁 장애요인을 해소를 촉진하는 효과와 다자간 무역협상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증대를 추구하고 있고, 외교안보적 측면으로는 지역주의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정치외교 군사적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한·중 FTA가 체결도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점차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와 정치안보상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FTA 정책은 중국이 FTA를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화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외교적인 영향력을 고취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추세에서 한국도 중국과의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의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6) 김정수,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9. p.155

5. 양국의 사회복지를 증가

국제무역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무역창출과 무역전출 효과를 발생시킨다. 무역창출효과는 지역복리를 증가시키고 무역이전효과는 지역복리를 감소시키며 총 효과는 두 효과의 합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FTA가 체결이 되면 양국이 서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더 편리하게 상대국의 시장으로 이전이 되면서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는 복리를 증대시킬 것이다.

6. 양국의 산업구조조정에 유리

양국은 노동력, 자원, 자본, 기술, 상품시장, 산업구조, 기업관리 등 방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동시에 한국에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제공해주며 한국은 중요한 원재료의 수요자이며, 중국에 자본과 기술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의 관계는 향후 한국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에 플러스 요인이 되며, 중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자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FTA의 체결은 양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세계 경제 속에서 양국의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제 3절 한·중 FTA 추진현황

<표 2-2>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 11월 ASEAN+3회담 중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하고,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년간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민감 분야도출 및 산업별 양향 등에 대한 민간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표 2-2> 한국 FTA 추진 현황

년도	날자	협상장소와 주요내용
2004년	4월 9일	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년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2006년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2007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
2008년	3월 22~23일 7월 3~5일 10월 23~25일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북경)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서울)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위해)
2010년	2월 18~20일 6월 11~13일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북경)
2011년	2월 4월 11일 5월 28일 9월 28~29일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 대표간 협의(북경) 한·중 통상장관회담(북경) 양국 정성 임석하에 양국서명(서울) 한·중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회의 개최(북경)
2012년	2월 24일 3월 2일 3월22~23,4월5 5월 2일 5월 14일 7월 3~5일 8월 2~24일 10월30~11월1 일	한·중FTA 공청회 한·중FTA 추진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서울) 한·중FTA 추진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북경)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북경) 제1차 협상(Kick-off meeting) 개최 (북경) 제2차 협상 개최(제주) 제3차 협상 개최(에이하이) 제4차 협상 개최(경주)
2013년	4월 26~28일 7월 2~4일 9월 3~5일 11월 18~22일	제5차 협상 개최(하얼빈) 제6차 협상 개최(부산) 제7차 협상 개최(웨이팡) 제8차 협상 개최(인천)
2014년	1월 6~10일 3월 17~21일 4월 15~16일 5월 26~30일 7월 14~18일 9월 22~26일 11월 6일 11월 10일	9차 협상 개최(서안) 10차 협상 개최(일산) 회기간회의 개최(북경) 11차 협상 개최 12차 협상 개최(대구) 13차 협상 개최(베이징) 14차 협상 개최(베이징) 협상타결선언(베이징)
2015년	2월 26일 6월 1일	한·중 FTA 가서명 한·중 FTA 정식협정(서울)

출처: 외교통상부, 2015, <http://www.fta.go.kr/>

2006년 11월 17에는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이 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2007년 1년 동안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 과 중국의 공식적 FTA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금년 2015년 6월 1일 체결협정까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가 14차 까지 개최되었다. 각 회의별 주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는 공동연구 운영 계획,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의 확정이며, 2차는 회의의 시간 및 FTA체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한·중 양국 상품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이며, 3차는 한국의 농수산업 보호에 대한 입장표명과 중국의 부분적인 공업제품 보호에 대한 입장표명이며, 4차는 농업에 있어 폭넓은 의견 교환과 원산지,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논의이며, 5차에서는 민감품목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농업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은 농림수산업, 중국은 제조업이 초민감 품목이다. 그러나 중국은 FTA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파급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10년 9월 28일 이후부터 한·중 FTA 민감분야인 농산물 부분에 대한 정부간 사전협상이 진행되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FTA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에 될 수 있으며,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부문인 농업부문에 대한 초민감한 사항을 양국이 협상을 하리라 생각한다.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가격경쟁력을 가진다. FTA가 발효 되면 관세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한국의 농가들은 피해가 분명할 것이다. 협상에서 보듯이 유예기간을 얼마간은 주어지지만 언제까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제 4절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

한·중 FTA의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 회의’에서 민간 공동연구 추진합의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양국 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치고 2010년 9월 28일을 기점으로 민간분야 사전협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한·중 FTA에 대하여 양국은 다소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국에게 농업분야 개방의 민감성과 농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언급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한국기업 한·중 FTA 관련 인식조사에서 조사기업의 60~70%가 한·중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가 한국에게 긍정적 기대효과와 부정적 우려를 동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FTA로 교역이 자유화되고 시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의 중국 수출증대와 중국시장의 선점 그리고 GDP 및 후생수준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농업을 비롯한 취약산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과 동시에 선진기술유출 및 중국 의존도 심화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한·중 FTA에 대해서 파급효과와 전망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중국은 효과나 전망보다 FTA 성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FTA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한·중 FTA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중국의 입장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고, 또 향후에도 지속적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이다. 2001년 WTO에 가입을 하였으며, 경제성장에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이용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수출시장과 해외자원의 확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경제성장⁷⁾, 미국·일본을 견제하여 세계경제의 주도권 확보 등이 되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농업분야 개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농업에 대한

⁷⁾특히 중국의 서남부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ASEAN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것은 서부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동남아는 중국서부지역의 남하(南下)통로와 주요 수출시장인면서 화교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데 양 지역 간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면 화교자본을 서남지역으로 끌어들이기가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선자, 중국의 FTA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경제연구원, 2007. p.29

‘특별한 고려’를 언급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⁸⁾ 이렇게 중국이 FTA를 서두르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과 전략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FTA를 통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피하려고 한다.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하여 자국의 산업고도화를 추구하려고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한국의 기술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자주적인 혁신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가격 경쟁력을 가진 농산물과 일부 제조업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여 한중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며,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통해 쇠퇴의 길에 들어선 동북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와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집중되는 '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둘째, 중국은 한·중 FTA 추진에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에너지 자원의 확보나 수출시장 확대의 의미가 크지 않고, 또 한중간의 경제교류발전은 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지리적인 인접성과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로 인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한·일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그리고 한·미 FTA체결 이후 한·중 FTA를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촉구가 부쩍 늘어난 데서 보는 것처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학계나 업계 그리고 일부 실무수준의 관리들이 IT, 기계,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인하 및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산업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의 고위급 정치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한·중 FTA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국제경제 흐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 ‘양

8) 2002년 11월 중국은 처음으로 ‘한중산업정책분과위원회’에서 한중 FTA의 검토를 제안한 후, 2005년 6월 ‘한중국무총리 회담’에서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 리가 당시 한국의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한중 FTA의 정부 간 검토를 공식 요청하면서 한국의 농업분야 개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농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언급하는 등 한중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2007년 4월 원자바오 총리의 한국 방문에도 한중 FTA의 공식 추진을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한중 FTA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진병근,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통일연구원, 2008. p.12

국은 FTA'라는 새로운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의 CEPA, ASEAN,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중국은 동아시아 통합의 중심점으로 작용하고 싶어 하며, 그 핵심적인 부분을 한국과의 FTA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FTA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FTA형성에 관심이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및 일본의 영향력 에 대해 균형을 잡고자 하는 국제정치 동기가 강하고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경제적 전략적 의도가 강하여 FTA의 조속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상품분야를 중심으로 한 낮은 수준의 FTA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포괄적 FTA 협상을 꺼리는 이유는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관세 이외의 분야에서 개방에 민감한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도 중국은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관세철폐를 이행하는 전통적 FTA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의 입장

한국의 정부는 중국과의 FTA를 미국이나 EU 등 다른 나라들과의 FTA에 비해 상당히 신중한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세계적인 지역무역 협정의 물결 속에서 교역 대상국들과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정부의 FTA 요청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중 FTA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무역수지 불균형 및 투자분규 등의 마찰을 안정적인 중국시장의 확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출 증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수출 증대 효과는 국민적인 후생수준을 높일 것이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중국 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

한·중 FTA는 경쟁국에 비해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고 하였다. 현재 중국시장을 두고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는 일본과 대만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중국시장 점유율도 비슷하며 수출 상위 품목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 체결은 일본과 대만보다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FTA의 일반적 정책효과에 따라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⁹⁾. 또한 FTA체결로 역내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역내에 생산거점의 확보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한국의 서비스시장의 진출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대국 중국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중국과의 분업구조 조정을 통해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유도하여 새로운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정치적·외교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적극적인 FTA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여 동아시아 경제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최근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기의 긍정적인 효과와 대비되는 한·중 FTA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첫째,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업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¹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농산물은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가진다. 한국과 비슷한 작목구조로 인해서 수확시기가 대동소이하며, 소득수준의

9)지만수,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이 한국의 GDP는 2.4~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4.

10) 1948년 9월 9일 정권을 수립한 북한과 1949년 10월 1일 건국한 중국은 1949년 10월 6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2009년을 '북·중우호의 해'로 선포하고 총리의 상호방문을 통해 북핵문제로 소강상태에 놓였던 북·중 관계를 복원했다. 이장규,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181

향상으로 소비구조가 비슷해졌다. 또한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서 농산물 교역의 주요 저해요인이 되는 신선도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농산물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그동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받던 한국의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어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간재 수출로 인한 미미한 수출 증대효과이다. 중국이 비록 세계 3위의 수입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명목 관세율이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중국 주력 수출품인 가공무역용 원자재 및 일부 자본재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입이 이루어지기 있고, 기술표준, 검역, 통관절차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통한 한국의 수출 증대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 중국 수출 분포

(단위: %)

가공단계별 수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차 산품		0.4	0.5	0.5	0.6	0.6	0.7	0.8
중간재	계	84.9	76.1	76.5	79.7	82.0	79.3	79.3
	반제품	65.2	52.0	46.2	43.9	42.0	43.3	41.3
	부품/부분품	19.5	24.1	30.3	35.8	40.0	35.9	35.6
최종재	계	16.2	23.4	23.0	19.7	17.3	20.0	22.3
	자본재	11.1	18.5	18.6	16.2	14.0	16.7	19.4
	소비재	5.1	4.9	4.4	3.5	3.3	3.3	2.9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0, <http://www.kita.net/>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주력상품은 중간재이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가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의 관세인하로 인한 중국 수출의 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관세 인하로 인한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소비재와 중저가 부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 FTA가 한국 소비자의 후생수준은 향상시킬 수 있으나 한국의 중소기업 부문이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부문에서 상당한 타격을 가져가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업 피해는 광범위한 제조업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국내의 산업구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밖에 한·중 FTA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증대로 인해 한국의 산업 공동화를 야기해 취업문제 악화와 경제성장을 하락시켜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선진기술이 유출이 되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도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¹¹⁾

11) 박정석,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46.

제3장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

제 1 절 한국의 농산물 무역현황

1. 한국의 농산물 무역 동향

농업의 세계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을 수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농산물 수출현황은 <표 3-1>를 살펴보면, 농산물수출총액은 1992년 678백8십만 달러에서 2012년 4,785백6십만 달러로 4,106백8십만 달러(605%)나 증가하였고, 2010년 대비 2년 동안 무려 2063백9십만 달러(75.8%) 증가하였다. 이렇듯 수출총액은 매년 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점유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수출총량 역시 2010년 2,079백2십만 달러에서 2012년 2,338백만 달러로 2년 동안 258백8십만 달러(12.4%) 증가하였고, 매년마다 수출총량 및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한국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연도	수출총액	점유율(%)	수출총액	점유율(%)
1992	678.8	0.6	618.0	1.5
1994	835.2	1.5	771.1	3.0
1996	1,156.3	2.3	899.8	3.1
1998	1,002.2	3.9	1,048.2	6.1
2000	1,133.5	5.2	1,133.5	8.1
2002	1,374.5	7.0	1,239.2	10.2
2004	1,758.5	8.6	1,258.9	12.5
2006	2,008.2	10.8	1,263.9	13.7
2008	2,621.0	11.5	1,390.2	13.5
2010	2,721.7	12.0	2,079.2	13.0
2012	4,785.6	13.7	2,338.0	15.0

출처: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2, <http://www.kati.net/>

한국의 농산물 수입 현황은 <표 3-2>에서 살펴보면, 수입총액은 수출총액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0년 13,987백7십만 달러에서 2012년 2년 동안 18,711백2십만 달러로 4,723백5십만 달러(33.7%) 증가하였고 매년 수입총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한국 대 세계 농산물 수입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및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수입총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2> 한국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연도	수입총액	점유율(%)	수입총액	점유율(%)
1992	3,404.0	27.7	14,197.7	42.4
1994	4,475.3	20.8	19,030.8	28.9
1996	6,867.0	7.7	22,840.9	5.3
1998	4,663.9	13.3	20,841.7	15.7
2000	5,104.5	22.6	23,113.8	33.3
2002	5,701.5	22.2	24,376.0	33.2
2004	7,444.6	15.1	24,317.4	15.7
2006	8,117.2	19.1	25,142.1	18.6
2008	13,904.6	14.0	27,842.8	12.8
2010	13,987.7	13.9	28,850.4	10.1
2012	18,711.2	12.6	31,587.2	9.7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2, <http://www.kati.net/>

2. 한국 농산물의 품목별 무역 현황

1)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한국의 2013년 해외 수출총액은 559,649백만 달러이며, 이중 농산물은 7,876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4% 정도 된다. 한국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은 원예작물과 가공식품류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적 많이 수출되고 있는 과채류는 파프리카, 멜론, 토마토, 고추 등이 있으며, 오이나 가지, 딸기 등도 싱가포르, 홍콩에 수출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공 식품류의 수출은 주류, 과자류, 면류 등으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다. <표 3-3>에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곡류의 수출액은 2002년 612만 달러에서 2009년 1,750만 달러로 약 2.1배 증가 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실류는 2005년부터 2006년에 수출액이 약간 감소했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사과, 딸기, 배, 토마토 등이 있다. 이 중 사과의 수출액은 대만으로 56%, 홍콩으로 13%, 싱가포르로 13%, 러시아연방으로 10%, 기타 8% 수출하고 있고, 토마토의 수출액은 일본으로 71%, 중국으로 16%, 러시아로 11%, 미국으로 2% 수출하고 있으며. 배의 수출액은 대만으로

49%, 미국으로 46%, 인도네시아로 2%, 캐나다와 홍콩, 싱가포르로 1% 정도 수출한다. 딸기의 수출액은 홍콩으로 37%, 싱가포르로 33%, 말레이시아 11%, 태국 9%, 일본 4%로 수출하고 있다. 채소류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 에서 2007년에 잠시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주요 품목은 채소종자, 고추, 김치 등이 있다. 화훼류, 주류, 소스류, 커피류, 인삼류, 당류, 과자류 또한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훼류 주요 품목은 장미, 백합, 국화 등이 있다. 2011년 농산물 수출 품목 중 주류가 40,317만 달러로 가장 큰 수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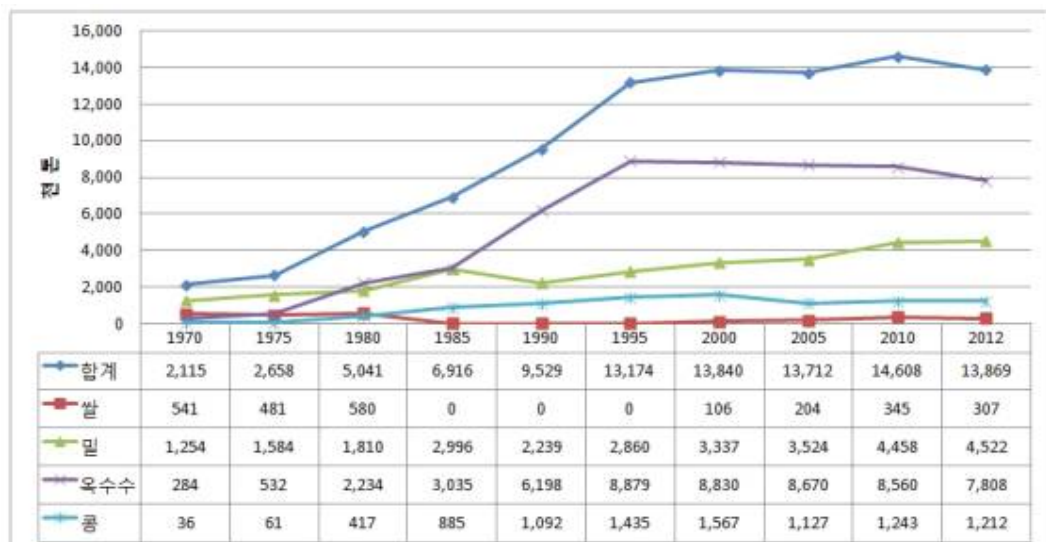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소스류	커피류	인삼류	주류	당류	과자류	곡류
2002	8,28	16,87	3,21	4,74	5,97	5,50	15,97	8,98	14,58	61
2003	7,05	19,38	4,52	5,51	6,36	6,66	17,38	9,14	14,84	62
2004	8,57	22,96	4,85	6,67	8,18	8,91	20,42	9,30	18,26	85
2005	12,08	23,14	5,21	8,14	11,06	8,24	18,91	11,15	20,40	86
2006	9,84	20,39	4,04	9,50	12,52	8,86	19,26	15,44	20,58	1,15
2007	14,49	19,64	5,81	10,72	16,08	9,21	19,17	15,53	22,55	1,29
2008	15,50	23,39	7,62	12,17	19,80	9,72	23,61	15,28	24,80	1,83
2009	17,26	25,09	7,72	10,95	19,85	10,78	24,21	18,13	24,96	1,75
2010	19,54	27,68	10,31	12,97	22,10	12,42	31,33	31,10	29,05	-
2011	19,95	28,28	9,06	15,54	33,30	18,93	40,32	35,80	37,51	-
2012	22,20	33,12	8,396	17,19	31,07	15,08	41,74	33,68	40,31	3,21
2013	23,33	30,96	6,11	18,10	31,45	17,49	38,55	28,91	43,39	2,98
2014	25,86	31,35	4,06	18,75	30,78	18,35	40,42	29,83	48,99	3,21

출처: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5, <http://www.kati.net/>

2)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품목 중 곡류의 수입 현황은 <그림 3-1> 에서 살펴보면, 곡류는 쌀, 밀, 옥수수, 콩 등이 있고, 전체적인 총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쌀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수입량이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 2010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12년에 30만7천 톤으로 2년 전보다 3만7천 톤(11%) 감소하였다. 쌀은 중국 42%, 미국 28%, 베트남 13%, 태국 12%, 기타 5%에서 수입한다. 밀과 옥수수는 수입 품목 중 88.9%로 점유율이 가장 크며. 밀의 수입량은 한때 1985년 299만6천 톤에서 1990년 223만9천 톤으로 75만7천 톤(25.2%)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미국 43%, 호주 39%, 인도 9%, 캐나다 7%, 우크라이나 2%에서 수입한다. 옥수수의 수입은 곡물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36%, 브라질 22%, 아르헨티나 13%, 우크라이나 11%, 세르비아 8%, 헝가리 4%, 기타 6%에서 수입하고, 매년 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콩의 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42%, 브라질 29%, 중국 16%, 파라과이 12%, 캐나다 1%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림 3-1> 한국의 곡물 수입 현황



출처: 호성농업경영연구소, 2012, <http://blog.naver.com/>

한국의 전체적인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은 <표 3-4>를 살펴보면, 곡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16억4688만 달러에서 2012년 47억7295만 달러로 31억2607만 달러 증가하였다. 2008년 44억7737만 달러에서 2009년 30억581만 달러로 14억1927만 달러(31.7%)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곡류품목 중 옥수수과 밀의 수입은 약 88.9%나 차지하고 있다. 두류는 2002년 3억4850만 달러에서 2011년 7억6665만 달러로 4억1815만 달러(120%) 증가했고, 과실류는 곡류 다음으로 수입 품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등 이 있다. 채소류도 2008년에서 2009년에 9123만 달러(15.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상승세이며, 주요 품목으로는 채소종자, 고추, 양파 등 이 있다. 식물성 유지도 매년 상승하고 있고, 주요 품목은 대두유, 유채유 등 이 있다. 커피류도 우리나라의 커피 원두 소비량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2억3411만 달러에서 2008년 3억3631만 달러로 1억220만 달러(43.6%)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료와 코코아류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주류와 당류는 비교적 예전부터 수입량이 많았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 만 달러)

	곡류	두류	과실류	채소류	식물성 유지	사료	커피류	코코아 류	주류	당류
2002	164,688	34,850	41,925	19,547	24,668	21,864	8,419	12,026	39,506	35,719
2003	178,497	43,592	50,652	27,894	30,082	24,360	10,534	13,992	41,679	36,487
2004	226,404	51,966	56,428	36,103	43,257	26,013	11,611	14,283	38,354	39,960
2005	202,291	43,054	61,556	38,124	49,833	28,841	16,697	14,829	43,574	50,705
2006	211,611	36,063	71,266	49,975	49,360	33,514	19,036	16,515	48,086	68,318
2007	292,877	46,824	85,167	57,696	64,722	44,832	23,411	20,963	61,657	57,820
2008	447,737	85,457	82,547	58,183	94,593	49,724	33,631	19,083	67,030	73,032
2009	300,581	64,495	71,701	49,060	71,546	39,785	31,228	19,333	50,994	82,417
2010	345,502	65,168	94,513	71,949	86,440	49,842	41,814	25,843	60,015	110,320
2011	477,295	76,665	121,317	85,548	122,995	58,030	71,894	33,890	68,475	138,810
2012	475,532	81,396	141,239	83,903	117,846	70,060	59,854	33,928	72,672	126,078
2013	497,062	82,327	149,773	83,661	94,826	74,968	50,376	35,403	72,150	116,632
2014	437,456	92,212	167,740	79,777	104,361	72,921	59,543	39,878	79,371	108,207

출처 :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5, <http://www.kati.net/>

3. 한국 농산물의 국가별 무역 현황

1)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한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등이다. 그중에서 일본, 중국,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일본과 미국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과 ASEAN 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신선농산물 수출은 동남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한·ASEAN FTA 가 발효된 이후 동남아권의 수출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표 3-5>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일본	1,221	-6.8	1,435	17.5	1,562	8.9	1,859	19	2,347	26.2
중국	456	33.6	524	14.8	509	-2.8	733	43.9	1,189	62.2
미국	398	7.2	421	5.8	442	5.0	490	10.8	600	22.4
러시아	250	16.2	282	12.6	210	-25	219	4.1	243	10.9
태국	104	31.1	140	34.3	152	9.2	188	23.4	272	44.7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2, <http://www.kita.net/>

<표3-5>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의 제일 큰 농산물 수출국은 일본이다. 2007년에 일본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감소하였지만 2008년부터는 계속 증가해 왔다. 2007년의 일본에 대한 농산물수출액은 12억 달러였고 2011년에는 2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서 2011년의 수출액은 평균 24.2%의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계속 변동하고 있다. 2008년 중국으로의 농산물수출액은 2007년에 비하여 14.8%증가하는데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하여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 년의 농산물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43.9% 증가하였으며 2011년은 2010년에 비하여 62.2% 증가하였다. 미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의 수출액비중은 2010년보다 22.4% 증가하였다. 태국으로의 농산물수출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해 왔다. 아랍에미리트로의 농산물수출액은 2007년에 약 1.5%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

12) 문한필·최세균·정대희, '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p.17.

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동시에 러시아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9년에 약 25.5%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른 해에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절대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총 대외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로는 공산품 수출액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농산물 수출액 비중의 상대적인 감소 및 한국의 산업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2)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한국의 농산물 수입국 1, 2위는 미국과 중국이다. <표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에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농산물수입 대상국이었다. 그러나 2007년에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로 2008년 이후에는 중국 대신에 미국이 한국의 제일 큰 농산물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2009년의 한국의 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감소했지만 2010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농산물 수입대상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007년 24%에서 2011년 32%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7년까지 한국의 농산물 수입에서는 중국산이 미국산을 대체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2008년 중국의 곡물수입제한조치로 인해 다시 미국산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육류(쇠고기)를 중심으로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수준이다.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최근 10% 수준이지만 2011년7월에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발견되었다. ASEAN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한·ASEAN FTA 발효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주로 쇠고기, 밀, 사탕을 수입한다. 이 외에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도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이다.

2009년 한국의 수입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국가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2010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앞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농산물 무역액은 한국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농산물 무역에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것도 알 수 있다. 이 원인을 찾기 위해 한국 농산물의 품목별 수출입현황 및 국가별 수출입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3-6>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미국	3,821	23.5	6,533	71	4,387	32.8	5,726	30.5	7,581	32.4
중국	4,281	28.6	3,696	-13	3,079	16.7	3,714	20.6	5,233	40.9
호주	1,764	-0.1	1,894	7.4	1,634	13.7	2,134	30.7	2,820	32.1
브라질	909	38.6	1,117	22.9	1,327	18.7	1,201	-9.5	1,619	34.8
태국	815	4.9	1,173	44	743	36.7	1,092	47.1	987	-11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2, <http://www.kita.net/>

한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인삼 등이 있다. 이 주요 수출 농산물은 전체 수출 농산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의 주요 수입 농산물 품목은 쌀, 밀, 옥수수, 과일류, 채소류, 커피류 등인데, 이러한 주요 농산물의 수입액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출입의 현황을 통해 한국의 농산물 수출대상국이 일본, 중국, 미국 등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일 크다. 한국의 농산물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산물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입대상국은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등인데 그중에서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한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액은 중국 농산물 수입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2절 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소비 시장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농업생산국이다. 중국은 또한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높은 국가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식품류의 소비 행태도 상당히 비슷한 한국은 이미 수입 농산물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중 농산물 무역은 확대 추세에 있으며 상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양국은 농업부문에서 산업간 무역 가능성이 매우 낮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혜택이 편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중국의 농산물 무역 동향

2012년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액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앞질러 농산물 무역적자는 크게 확대되었다. 2012년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1740.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9%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액은 625.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1115억 달러로 18.8%가 증가하여 중국의 농산물 무역적자¹³⁾는 전년의 15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54% 증가하였다.

¹³⁾ 수입상품 즉, 눈에 보이는 상품(Visible Goods)의 수입금액이 수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 나라의 무역수지는 적자가 된다.

<표 3-7> 중국의 농산물 수출 현황 (2010-2012)

(단위: 억 달러)

2010		2011		2012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488.7	24.7	601.1	23.0	625.9	4.1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2, <http://www.kati.net/>

<표 3-8> 중국의 농산물 수입 현황 (2010-2012)

(단위: 억 달러)

2010		2011		2012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719.0	37.8	938.9	30.5	1115	18.8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2, <http://www.kati.net/>

2.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무역 현황

1) 곡물

2012년 중국의 곡물 수입량은 1398.3만 톤으로 전년대비 156.7%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47.9억 달러로 전년대비 134.2% 증가하였다. 수출량은 101.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6.4%가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하였다. 곡물 순수입량은 1296.7만 톤으로 3.1배 증가했다.

쌀의 수입은 236.9만 톤으로 전년 대비 296.2%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27.9만 톤으로 전년대비 45.9% 감소하였다. 옥수수의 수입은 520.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0%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25.7만 톤에 전년 대비 89.1% 증가하였다. 밀의 수입은 370.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2%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28.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9%나 증가하였다.

<표 3-9> 중국의 곡물 수출입 현황 (2012년)

(단위: 만 톤)

구분	수입량	전년대비 증감률 (%)	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	순수출	비교
곡물	1398.3	156.7	101.6	16.4	1296.7	전년3.1배증가
쌀	236.9	296.2	27.9	-45.9		
옥수수	520.8	197.0	25.7	89.1		
밀	370.1	194.2	28.6	12.9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2, <http://www.kati.net/>

2) 과일

2012년 채소 수출량은 934.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9%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100.1억 달러로 14.8% 감소하였다. 무역흑자¹⁴⁾는 95.9억 달러로 전년대비 16.0% 감소하였다.

과일 수출량은 486.4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61.8억 달러로 12.0%나 증가하였다. 수입량은 342.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37.6억 달러로 21.0% 증가하였다. 무역흑자는 24.2억 달러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¹⁴⁾ 무역흑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이다. 무역 수지흑자가 되면 일국의 GDP가 증가하게 된다.

<표 3-10> 중국의 채소 및 과일의 수출입 현황 (2012년)

(단위: 만 톤)

구분	수입				수출				무역흑자	
	물량	증감 (%)	금액	증감 (%)	물량	증감 (%)	금액	증감 (%)	금액	증감 (%)
채소	934.9	-3.9	100.1	-14.8	-	-	-	-	95.9	16.0
과일	48	1.4	61.8	12.0	342.5	0.2	37.6	21.0	24.2	0.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3) 식용유지, 식용식물유

2012년 중국의 식용유지류 수입량은 6228.0만 톤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377.5억 달러로 19.9% 증가하였다. 수출량은 100.6만 톤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18.3% 증가하였다. 무역적자 360.5억 달러, 전년대비 20.0% 증가하였다. 대두 수입량 5838.5만 톤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다. 유채종실 수입량 293.0만톤으로 전년대비 132.0% 증가하였다. 식용식물유는 수입량은 960.0만톤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08.0억 달러로 전년대비 19.9% 증가하였다. 무역적자 106.2억 달러로 전년대비 20.8% 확대하였다. 올리브유 수입량은 634.1만톤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하였다. 대두유수입량은 182.6만톤으로 전년대비 59.7% 증가하였다. 유채기름 수입은 117.6만톤으로 전년대비 113.4% 증가하였다. 대두박은 수입량은 104.7만톤으로 전년대비 45.6%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2.6억 달러로 53.1% 감소하였다. 수출량은 153.4만톤으로 전년대비 160.7%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7.6억 달러로 202.4% 증가하였다. 옥수수 주정박(DDGs)은 수입량은 238.2만톤으로 전년대비 41.3%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7.7억 달러로 전년대비 59.8% 증가하였다.

<표 3-11> 중국의 식용유지 및 식용식물유 수출입 현황 (2012년)

(단위: 만 톤)

구분	수입				수출			
	물량	증감 (%)	금액	증감 (%)	물량	증감 (%)	금액	증감 (%)
식용유지류	62228.0	13.6	377.5	19.9	100.6	10.4	17.0	18.3
대두	5838.5	10.9						
유채종실	293.0	132.1						
식용식물유	960.0	23.1	108.0	199.9				
올리브유	634.1	7.3						
대두유	182.6	59.7						
유채기름	117.6	113.4						
대두박	104.7	45.6	2.6	53.1	153.4	160.7	7.6	202.4
옥수수주정박	238.2	41.3	7.7	59.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3. 중국 농산물의 국가별 무역 현황

1) 곡물

중국의 2010년 곡물 수출량이 감소했고 수출시장은 주변국가와 지역에 집중되었다. 한국과 북한으로의 수출량은 각각 22.8만 톤과 28.8만 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8.9%와 62.1% 증가하였다. 중국의 한국과 북한에 대한 곡물 수출량은 곡물 전체 수출량의 41.6%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13.3%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과 2007년에는 한국으로의 곡물 수출량이 중국 전체 곡물수출량이 40%를 초과하였고 그 뒤를 일본이 차지하였다. 2006년과 2007년 한국과 일본으로의 곡물 수출 비중은 중국 전체 곡물수출의 50%를 초과하였다.

일본, 홍콩, 라이베리아가 각각 3,4,5 위를 차지했으며 이들에 대한 수량은 각각 곡물 전체 수출량의 13.6%, 12.9%, 4.6%를 차지한다.

<표 3-12> 중국 곡물 수출 현황 (2006~2010년)

(단위: 만 톤,%)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량	비중	수출량	비중	수출량	비중	수출량	비중	수출량	비중
북한	20.82	3.41	27.93	2.83	12.56	6.75	17.8	13.0	28.8	23.2
한국	256.7	42.07	444.1	44.74	21.67	11.64	21.0	15.3	22.8	18.4
일본	63.07	10.34	113.6	11.53	22.56	12.12	18.6	13.6	16.9	13.6
홍콩	13.23	2.17	14.96	1.52	17.45	9.38	16.9	12.4	16.0	12.9
베트남	16.96	2.78	14.91	1.51	14.67	7.88	4.8	3.5	5.7	4.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2010년 중국의 주요 곡물수입시장은 호주, 미국, 캐나다이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각각 225.2만 톤, 163.3만 톤, 76.8만 톤이고 그 합계는 중국 곡물 전체 수입량의 81.6%를 차지한다. 또한 2006년의 경우 호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전체 곡물수입의 55.63%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태국과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이 3개국의 수입 비중이 90%를 초과하였다. 태국은 2008년까지 20%대를 유지해 오다가 2009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 비중은 5.8%에 불과하다.

<표 3-13> 중국의 곡물 수입 현황 (2006~2010년)

(단위: 만 톤,%)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량	비중	수입량	비중	수입량	비중	수입량	비중	수입량	비중
북한	200.1	55.63	51.55	33.10	79.32	51.49	119.8	38.0	225.2	39.5
한국	24.88	6.91	2.14	1.37	0.46	0.42	40.3	12.8	163.3	28.6
일본	55.52	15.41	39.87	25.60	21.95	14.25	61.3	19.5	76.8	13.5
홍콩	1.48	0.41	7.95	5.11	8.14	5.28	41.6	13.2	50.3	8.8
라이베리아	69.07	19.17	45.70	29.34	32.14	20.86	34.8	11.0	33.1	5.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2) 과일

수출량을 기준으로 2010년 중국 과일의 상위 5개 수출국을 보면 미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순으로 수출량 합계는 260.5만 톤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과일 전체 수출량의 51.3%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21.9억 달러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으며, 과일 전체 수출액의 50.2%를 차지한다.

중국의 과일 수입시장은 주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얀마, 미국으로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량 합계는 중국의 과일 전체 수입량의 86.8%를 차지한다.

수출시장을 보면 2006년에는 미국, 러시아, 일본이 3대 시장이었으나, 2010년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2위와 4위에 올랐다. 수입시장은 2006년에 필리핀, 베트남, 태국 순이었으나 2007년 이후 줄곧 베트남, 태국, 필리핀 순이 유지된다.¹⁵⁾

<표 3-14> 중국 과일 수출 현황 (2006~2010년)

(단위: 만 톤, 억 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미국	52.02	4.64	74.91	8.27	71.50	9.94	73.37	7.06	75.7	3.2	7.8	10.7
베트남	-	-	24.92	0.59	54.95	1.80	78.17	2.57	59.8	-23.5	2.6	0.7
러시아	42.52	2.29	58.05	3.71	53.59	3.67	48.75	2.97	50.7	4.0	3.7	23.9
인도네시아	-	-	28.23	1.41	31.84	1.99	39.86	2.61	43.8	9.7	3.4	30.0
일본	39.02	4.36	41.76	5.17	31.31	4.60	27.66	3.85	30.5	10.2	4.4	14.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15) 장신, 한·중 FTA 협정이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50.

<표 3-15> 중국 과일 수입 현황 (2006~2010년)

(단위: 만 톤, 억 달러, %)

	2006		2007		2008		2009		2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베트남	31.8	0.81	33.32	0.84	39.06	1.28	62.23	2.04	75.0	20.5	2.5	21.2
태국	25.80	1.75	32.18	2.53	37.34	3.11	60.34	5.01	48.6	-19.5	5.0	0.5
필리핀	35.25	1.15	31.80	1.12	33.91	1.44	37.74	1.73	47.3	25.4	2.3	33.9
미얀마	-	-	1.14	0.05	18.65	0.18	29.97	0.28	39.4	31.6	0.5	67.1
미국	12.47	1.24	-	-	14.75	1.78	21.62	2.60	24.2	11.8	3.4	30.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3) 채소

중국 채소의 수출시장은 집중도가 매우 높은 실정인데 2010년 아시아와 유럽 시장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였다. 중국 채소는 일본, 한국, 아세안, 중앙아시아에서 수출 지위가 확고하여 무역규모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의 아시아 수출액 전년대비 53.2% 증가하였고 채소 전체 수출액의 63.8%를 차지하였다.

2006년에도 중국 채소의 주요 수출시장은 아시아와 유럽이었으며 이 두 지역으로의 수출액이 전체 채소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4.3%와 19.4%로 합하면 83.7%로 절대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남미와 아프리카 비중은 2006년에 각각 2.7%와 3.0%였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4.7%와 4.6%로 증가하였다.

< 표 3-16 > 중국 채소 대륙별 수출 현황 (2006~2010년)

(단위: 만 톤, 억 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출총액 증비중
아시아	510.08	34.92	548.83	36.68	540.36	36.62	538.4	41.6	560.0	4.0	63.7	53.2	63.8
유럽	128.69	10.54	151.09	14.09	152.94	15.27	138.0	13.4	150.1	8.8	17.0	27.2	17.1
북미주	47.45	5.10	65.19	7.10	67.08	7.45	54.6	6.5	54.4	-0.5	8.7	32.9	8.7
남미주	20.27	1.65	14.92	1.18	19.49	1.19	30.0	2.8	29.4	-2.3	4.7	70.7	4.7
아프 리카	20.18	1.46	29.15	2.27	30.28	2.90	34.4	3.6	42.5	23.5	4.6	30.4	4.6
대양주	6.02	0.59	8.41	0.82	9.56	0.97	8.4	0.9	8.2	-2.3	1.1	17.5	1.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2010년의 대 유럽 채소 수출액과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27.2%와 8.8% 증가하였다. 북미, 대양주에 대한 수출액은 모두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하였고 특히 중남미 수출 증가율은 70.7%에 이른다.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량과 수출액은 전년도의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채소의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수출국을 차례대로 열거하면 일본,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러시아, 홍콩, 독일 이다.

일본은 중국의 최대 채소 수출시장으로 2010년의 중국의 대일본 채소 수출량은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포지티브 리스트¹⁶⁾ 시스템을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증가이었다. 대일본 채소 수출액은 3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16) 무역자유화·자본자유화 및 특혜관세 제도 등에 관해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자유화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는 외국에서 수량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계기한 것이며, 자본자유화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는 외국자본이 자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업종을 표시한 것이다. 또 특혜관세 제도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나타낸 것이다.

채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1.9%였던 것이 2009년에는 21.8%, 그리고 2010년에는 20%이하로 줄어들었다. 2010년 중국 채소의 대미국 수출량은 약간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32.4% 증가하였다. 한국, 러시아, 홍콩, 독일에 대한 채소 수출량은 모두 증가하였다. 상위 10개 수출국에 속하는 4개 아세안 국가 중 태국에 대한 수출량과 수출액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한 수출량은 소폭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베트남에 대한 2010년 채소 수출액은 전년대비 1.8배 증가하였다.

<표 3-17> 중국 채소 수출 현황 (2006~2010년)

(단위: 만 톤, 억 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수출총액중비중
일본	166.82	17.31	143.65	15.83	1117.91	14.39	113.3	15.0	132.3	16.9	19.3	28.7	19.3
미국	40.07	4.46	45.77	5.29	45.71	5.34	46.0	5.6	45.7	-0.7	7.5	32.4	7.5
한국	72.14	3.89	75.69	4.41	76.01	4.49	65.0	4.1	82.1	26.3	7.1	72.4	7.1
말레이시아	63.43	3.06	68.39	3.55	54.97	3.56	59.3	4.6	57.7	-2.7	6.3	38.5	6.3
인도네시아	33.64	2.26	40.62	2.55	43.30	1.97	43.2	2.9	40.5	-6.1	6.2	114.8	6.2
베트남	-	-	-	-	-	-	50.1	1.9	46.1	-8.0	5.3	181.2	5.3
태국	-	-	-	-	18.59	1.84	22.1	2.6	27.9	26.1	4.2	61.3	4.2
러시아	55.05	2.17	59.32	2.88	61.79	3.32	53.0	3.1	58.4	10.1	4.1	30.4	4.1
홍콩	43.55	1.92	57.25	2.03	63.29	1.87	60.6	2.0	63.7	5.1	3.0	51.1	3.0
독일	12.23	1.80	14.82	2.30	15.64	2.50	13.3	1.09	14.6	9.7	2.5	29.8	2.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제3절 한·중 FTA 농업부문 주요 쟁점

농업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영역이다. 한 나라의 농업의 발전은 국민경제의 기타 부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사회 안정 및 국가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FTA가 양국의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경쟁이 자국의 농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할 때는 양국의 농업일체화에 아직 많은 지장이 존재하고 있다.

1.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마찰

무역 마찰은 국제무역 중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역 평형에 발생하는 것인데, 보통 한 국가가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다른 국가가 적자를 내거나 한 국가의 무역 활동이 다른 국가의 산업을 건드리고 그 산업에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992년 한·중 수교부터 한·중 무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마찰도 비번하게 발생한다.

첫째, 한국의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제한조치는 무역마찰의 주요 원인이었다.

한·중 농산물에 대한 제한조치로 인한 무역마찰은 1999년 마늘과 2005년의 김치 분쟁에 나타났다. 한국에서 마늘 시장의 규모가 1조원(한원)이고 식량 다음으로 중요한 농산물이다. 1996년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9497톤 마늘을 수입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마늘의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1996년에 비해 3배 증가하여 37,252톤에 도달하였다. 이것 때문에 한국농업협회는 한국무역위원회에게 산업손해구제를 요청했고, 그해 11월 18일에 무역위원회는 2000년 6월 4일까지 200일 동안 중국 마늘제품에 30%~3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00년 5월 26일, 한국 정부가 WTO에 긴급수입제한을 통보했으며, 6월 1일 중국의 마늘과 마늘 제품에 대해 3년의 긴급부가관세를 적용한 것을 공포했다.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의 조치를 변형된 보호무역정책이라고 생각

하고 2000년 6월 7일부터 한국 휴대폰의 수입을 결정했다. 이런 무역 분쟁이 한국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중국으로부터 30%~50%의 저관세로 30,000톤 마늘을 수입하고 수입제한시간도 2002년까지로 단축했다. 중국정부도 즉시 한국 휴대폰에 대한 수입 금지를 취소하여 "마늘전쟁"이 일단 낮아졌지만 분쟁은 이것만은 아니었다.

2002년 이후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한·중 합작김치공장이 계속해서 설립되었다. 중국산 김치가 한국시장으로 조금씩 나왔다. 2005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김치 100,000통을 수입하였으며, 한국국내 김치시장의 중국김치점유율은 30%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 21일에 한국식품청이 9품목의 중국산 김치 중에서 회충 등 기생 벌레알을 발견하고 중국산 김치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에 대해 중국 정부도 한국산 김치에서 기생 벌레알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고 한국으로 부터 김치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둘째, 한국의 빈번한 반덤핑도 다른 주요 원인이다.

한국이 1962년에 최초로 반덤핑을 실시해서 전통적인 반덤핑 실시국가가 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한국은 중국을 "비시장 경제국가"로 보고 중국 상품에 대해 불공정한 관정을 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중국을 "시장 대표국"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경제지위 기준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투명도 또한 결핍되어 있었다. 그런 기업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여부는 주로 한국조사관리자의 주관적 요소에 달려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제3국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기준하였다. 이것은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소송이 자주 승리하여 격려 효과가 발생하게 만든 것이다. 1997년~2004년 한국이 25개 국가 및 지역의 수출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 81건을 하였으며 17개 국가에 대해 46건의 반덤핑조치를 실시했다. 그 중에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와 반덤핑조치의 수량이 각각 16건과 10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 수치는 같은 시기 한국에서 발생한 반덤핑조사 총량의 19.75%,덤핑조치 총량의 21.74%를 차지한 것이다.

업무 분포를 볼 때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사건이 주로 석유 화학업에 집중되어 있고 전부 반덤핑사건의 43%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사건 2건 중에서 1건은 석유화학산업에 관련한 것이다. 이외에 일반 소비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이고 광산물은 14%, 전기전자 및 종이류제품이 각각 차지하였다.

2. 한국입장의 쟁점

첫째,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면 한국농산물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관세철폐가 농산물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관세철폐 후 곡물과 채소과일 외에 한국의 대부분 농산물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지만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확대 효과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가공 많은 수출품은 가공식품이고 수출액이 181백만 달러였다. 중국은 목축제품과 기타 농산물, 탕류, 임산물의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다. 곡물, 채소과일, 수산품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지만 중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효과가 많이 보인다. 곡물의 수출액이 7,972백만 달러가 될 것이고 다른 농산물의 수출액이 1,916백만 달러 증가할 것이다.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1442백만 달러 증가될 것이다. 전체적인 관세철폐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량을 2.2억 달러로 증가시킬 것이고 중국의 수출량도 116.98억 달러가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농산물이 절대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고 한중 FTA가 중국농업의 발전을 크게 추진할 것이긴 하지만 한국 농업에 대한 영향을 아주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3-18> 완전관세철폐가 한·중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 달러,%)

	농업생산증가율(%)		한중무역증가액(백만 달러)	
	한국	중국	한국 대 중국 수출	중국 대 한국 수출
곡물	-12.04	6.26	10	7927
목축제품	10.06	-0.22	8	29
채소과실류	-0.01	0.39	1	288
기타농산물	7.6	-0.51	1	1916
가공식품	29.07	0	181	1442
당류	19.79	-3.46	10	0
임산물	0.53	-1.18	0	1
수산물	1.46	0.56	9	95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2, <http://www.kita.org/>

최근 몇년 사이에 농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은 한국 350만 농업인구의 기본생존문제 해결에 중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한국 농업과 농산물 무역 정책에는 국내 농업생산자를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오랫동안 국외제품이 자국의 쌀 등 중요한 농산물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하고 자국 농민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것을 한국 농업 정책의 기본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이런 영향은 사회생활 족으로 계속 확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업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한국 대량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파산직전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잉여 노동력과 실업률의 상승, 부당취직의 증대 등도 발생하여 사회가 불안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위기도 쉽게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식량안전문제에 대한 염려이다. 식량 안전이란 주요하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요 식량에 대한 자급”실시를 말한다. 쌀은 한국의 주요 식량이고 한국 식량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개방 중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이다. 한국이 농업시장을 개방하는 데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수입쌀에 대한 과도적인 의뢰가 국가 식량안전에까지 위험이 미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아주 낮지만 쌀은 완전히 자급할 수 있다. 향후 몇 년간 한국이 쌀 자급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곧 있으면 한·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될 것이나, 한국은 쌀시장 개방은 절대 있을 수 없음과 동시에 200여 가지 농산물 및 어패류생산품은 시장개방 협상 예외품목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한중 무역 자유화 문제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입장의 쟁점

첫째, 중국은 육류, 채소, 과일, 수산물 등 자원이 풍부하고 충분한 수출 공급 능력과 수출증가 잠재력이 있지만 환경오염과 농약, 비료와 같은 화학물에 의한 오염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의 완화, 농수산물 수입확대 및 검사 검역기준의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한국의 보호무역정책은 너무 강하다. 한국은 국내의 농업과 농산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보호무역장벽을 설치한다. 높은 관세는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한국의 관세 최고점은 중국이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표3-19>에 의하면 2010년, 곡물의 평균관세는 179.7%이고 최고 관세는 800%이다. 과일채소의 평균관세는 64.3%이고 최고관세는 887%이다. 커피, 차의 평균관세율은 74.1%이고 최고관세는 514%이다. 2008년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31.7%이지만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은 52.2%이다. 그중에 농산물의 최고 관세율은 887%이다. 같은 시기에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13.21%이고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은 17.1%이며 한국의 관세율에 비해 많이 낮다.

<표3-19> 2010년 한·중 양국 농산물관세비교

(단위:%)

	중국			한국		
	평균관세	면세산품	최고관세	평균관세	면세산품	최고관세
동물성생산물	14.8	9.4	25	27.3	0.4	89
낙농품	12.2	0	20	68.9	0	176
과실,채소,식품	15	4.8	30	64.3	0	887
커피,차	14.9	0	32	74.1	0	514
곡물	23.7	2.6	65	179.7	0	800
유지	11.6	6.2	30	46.9	1.3	803
당류,설탕과자	27.4	0	50	32.2	0	243
음료,담배	24.1	2.5	65	42.5	0	270
면화	22	0	40	2	0	2
기타농산물	11.9	10.2	38	20.8	9.4	754
어패류	11	6.7	23	15	0	32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2, <http://www.kita.org/>

제4장 한·중 FTA 체결이 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제1절 한·중 FTA가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중국에 농산물의 관세를 인하하고 관세철폐가 되면 한국 농산물에게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관세의 철폐는 한국 내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전체 폭락정도가 크다. 특히 유채 씨, 설탕 류 산품과 수산물에게 영향이 크다. 비교적 다른 곡물산품, 야채, 과일, 동물 등을 영향이 적고, 쌀, 밀, 보리 등은 영향이 더욱 적다. 그 외에는 한국의 농산물의 관세 철폐는 중국 등 나라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 농산품 관세 철폐는 중국 농산물 시장 가격과 산품 수출 가격의 인상을 가져온다. 이 때문에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그 동시에 중국 농산물의 수입 가격이 감소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품 관세의 철폐는 중국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한국보다 많이 적다.¹⁷⁾

쌀은 한·중 양국 간 중요한 품목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대량 구입(1990~1997년 평균 구입량은 총생산량의 26%였다). 이 방법으로 쌀의 가격을 조절하고 농민의 수입을 보증하였다. 하지만 1995년 종합지지량을 감소하는 등락을 한 후에 2000년 정부의 구입량이 17%까지 하락하였다. 그런데 쌀의 수입은 여전히 정부가 조절하고 있고 수입쌀과 국내 시장과 분리시킨다. 그래서 만약 쌀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 한국 여러 방면에 비교적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쌀을 예로 들어 일반균형과 국부균형을 결합하면서 다른 모형에 한·중 FTA가 양국, 특히 한국에 쌀 그리고 상관 상품 혹은 산업의 산출, 수요, 수출입액, 국내시장 가격 및 노동력 투입의 영향 등 상황에 대한 깊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쌀의 관세 철폐와 함

17) 어명근, 한·중 FTA 추진과 농업부의 예상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p.23

계 한국 국내 쌀의 수요량이 2.44% 증가하였으나, 쌀의 공급은 오히려 0.0634% 감소하였다. 수요와 공급의 변동을 절대 수치로 환산하면 수출입 변동량은 16.56만 톤, 총 수출입 변동액은 11.086만 달러다. 아울러 쌀의 종식 면적은 28.61만 헥타르 감소하고 실업자 수는 2.36만 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 쌀의 정부 수요량이 0.8% 증가하고 개인 수요량은 0.8% 증가하였다. 그리고 생산량은 0.7% 감소하였다. 아울러 쌀의 국내 수입은 20.3% 증가하였고 수출은 5.3%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국내 쌀의 시장 가격은 0.6% 내리고 쌀 생산에 종사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는 모두 0.89% 감소하였다. 그래서 어떤 모형을 채용하든 한국 쌀 시장의 개방은 한국 쌀 생산과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수입 폭이 커서 한국은 쌀의 수입 시장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쌀 수입 관세 철폐는 중국국내의 쌀 생산량이 증가로 이어진다. 그런데 중국의 쌀 수요량이 오히려 하강 추세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 정부의 수요는 0.0036% 감소하게 되고 개인의 수요량은 0.0003% 감소하게 되었다. 동시에 중국 쌀의 국내 시장가격과 수출입의 가격이 모두 비교적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¹⁸⁾

1. 무역장벽(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한국의 보수적인 무역태도가 양국 무역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6년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중국 제조업 상품의 수입 관세 평균이 6.7%, 중국은 한국 제조상품의 수입 관세 평균은 9.0%로,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농산품 분야에서 양국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한국의 수입 관세율은 43.5%이고 중국의 수입 관세율은 14.5%이다.¹⁹⁾ 이것은 한국은 중국보다 높은 관세장벽을 설치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행동은 당연히 중국 정부에 강력한 불만을 야기시켰다.

¹⁸⁾ 양경용, '한·중 FTA 추진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전북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34.

¹⁹⁾ 쟁지완, '한중FTA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2007, p.71.

또한 한국은 <2002년 HS 출입구 통관편람>을 사용해서 수입 농수산품의 제한을 강화시켰고, 질량 안정검사, 검역요구, 원산지 증명과 성분 함유량 제시 등 여러 방면에서 제한을 강화시켰다. 이는 중국 농산물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강화될 것으로, 중국 농산물은 자주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납을 함유한 계, 중금속을 함유한 고춧가루 등이다. 이런 사건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중국 농산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생겨난 비관세장벽은 한·중 무역자유화의 주된 장애로 되고 있으며, FTA를 가로막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2. 덤핑과 반덤핑의 증가

중국 제조 상품은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반덤핑 조사를 제일 많이 당하는 나라다. 이것은 한중 양국 농산물무역 중에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지리적인 특성으로 중국 농산물의 가격은 아주 저렴하다. 그래서 중국 상품은 한국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내 농민의 정치 압력에 시달리고, 항상 중국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를 들면, 1998년 중국에서 수입한 마늘은 총 14.9 톤이고, 1999년 수입량은 갑자기 93%까지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농민협회는 한국정부에게 중국에서 수입된 마늘에 반덤핑 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래서 한국정부 2000년 6월 1일에서부터 중국 마늘에게 급히 315% 높은 관세를 징수하였는데 원래 관세는 30%였다. 지금 한국이 수입 마늘에 징수한 관세는 360%를 증가한다. 이것은 이미 한·중 무역의 정상적 발전에 방해가 되고 한·중 FTA에 장애가 된다.²⁰⁾

20) 馬登科 雷興長, <한·중 무역 발전 불균형의 특징 분석> 蘭州商學經濟學院.

제2절 한국 농업에 대한 영향

1. 한국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

1) 한국 재식농업의 발전

한국은 지리적 조건과 높은 인건비로 인해 농산물의 원가가 비교적 높다. 한·중 FTA 체결 후 한국은 중국에서 싼 농산품을 수입할 수 있어서 한국 소비자들의 사회복지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중 FTA의 체결은 발휘하여 한국 재식농업을 농산물 가공 산업으로 인도할 수 있다.

2) 한국 국내 산업의 개선과 농업의 국제 경쟁력의 제고

한·중 FTA의 체결은 한국 농업에게 적지 않는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농업의 구조 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중국 농산물 수입의 증가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수입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채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으로 인해 중 내에는 국내 시장을 개방해야만 할 것이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한·중 FTA가 그 기회가 될 것이다.

3) 한국 농산물의 국제 시장점유율 확대

한·중 FTA 체결은 한국이 국제 시장의 분업 체계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기회이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신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모든 나라는 자국의 경쟁력을 파악하게 되며 강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국가 간에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한·중 양국 농산물 무역의 상호보완성이 높아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양국의 장점 보완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한국이 집중적으로 농업부문의 장점을 발전시키며 중국 및 세계에 농산물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4) 한국 농업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한국 농업 노동생산률은 제조업의 1/2뿐이다. 보다 낮은 노동생산률과 보다 작은 생산규모는 한국 식품 자급률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한다. 각종 보호무역제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업부문은 이미 초고령 화의 단계에 진입했다. 이처럼 농촌 고령화 현황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총 농업인구 중에서 60세 이상은 약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추산할 수 있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농업의 산업화 단계를 높일 수 있고, 산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국제시장으로의 진입은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

1) 농업에 대한 충격

한국은 농업자원이 부족하여 경작지 면적은 총 국토 면적의 18.4%밖에 안 되며 매 인당 경작지 면적으로 계산하면 0.08헥타르로 세계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다. 도시화와 공업화의 신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한국의 농업 종사자수는 급속히 줄어들어 전체 인구의 8.8%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수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업자인수의 40%는 60세 이상이며, 농업(농업·임업·목축업·어업) GDP는 1970년의20.7%에서 2004년 4.0%로 급감하였다. 쌀 이외 기타 농산품에 대한 자급률도 비교적 낮다. 품질이 낮은 수입농산물의 대량 공세로 국내 소비자 식탁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1970년대부터 농업부문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직불제 등의 보조금 지원 및 고리의 대부금으로 고통 받는 농민의 구제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업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ASEAN, EFTA, EU 및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왔다. 한국정부는 다수의 협정 내 농산품 협상에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민감 품목군, 초민감 품목군 및 관세철폐 예외대상

등을 지정하여 농산품 시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농산품 수입 검사 및 검역 표준을 강화하고 농산품 인증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한·중 농업 무역 거래 이래, 한국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농산물 수입국이었으며, 마늘, 양파 등 몇몇 농산품 품목의 수입은 한국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일부 한국학자들은 만일 한중 농업 무역에서 관세 없이 수출입을 이행한다면, 한국 농업 생산은 11.60% -12.0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 식량의 안전문제

세계적인 식량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각 국가마다 본국의 식량안전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 국가의 식량안보를 고려하면, 물론 자국 내에서 식량 자급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도산업화 사회에서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자급률이 95% 이상에 달하면 주요 식량자급국이라 판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식량을 자급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2008년 한국의 농업식품 부분에서 곡물 자급률이 26.2%이었다. 전문가의 예측대로 한·중 FTA가 체결된 후 한국의 곡물 생산율이 43.03% 감소된다면 한국의 곡물부분 자급률이 14%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식량위기 도래시 식량안보 대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즉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도래하여 식량가격이 폭등할 때 한국의 식량안전문제는 가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²¹⁾

3) 정치적 압력

한국에는 농민이익집단의 정치적 주장이 비교적 강하여, 정부는 이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쉽게 농업분야 이익을 침해하는 협상에 임할 수 없다. 한국의 일인당 GDP는 중국에 비해 훨씬 높으며²²⁾, 농산품원가도 따라서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 되면, 한국농민들은 가격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비록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 결과, 한·중 FTA 체결이 양국의 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영

21) 현준, '동(북)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p.263-296.

22) 한국 2011년 일인당 GDP는 약 2만 3천불, 중국의 경우 약 4천 700불 (물론 환율변수가 있어서 아직은 미지수임), 그래도 기록상으로는 한국이 중국 보다 약 5배 정도는 잘산다는 이야기이다.

향을 준다고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한국 농업에 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정부 정책과 농민의 이익과 충돌이라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말 것이다.

제3절 중국 농업에 대한 영향

1. 중국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

한·중 양국의 발전수준 및 생산요소를 보면 한·중 농산물자유무역은 중국에 더 유리하지만, 공업영역의 무역자유화는 한국에 더 유리하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FTA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추진할 수 없다면 FTA는 중국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1) 농산물 자유무역 확대

2006년에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1,343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이 금액은 1992년에 한·중 양국 외교관계가 시작될 때의 26배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27.1%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파트너이고 제일 큰 수출시장이자 두 번째로 큰 수입시장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동안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곡물과 수산물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양의 증가는 미진하다. 1993년에서 2006년까지의 증가율은 10.6%인데, 한·중 무역의 다른 영역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느린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농산물수출량이 급속도로 발전하지 못한 원인은 한국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와 높은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보다 농업자원이 풍부한 국가다. 농산물 품목이 많으면서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생산원가 또한 낮고, 농산물의 생산량은 높은 점이 그러하다. 특히 노동집약형 농산물이 높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농업인구가 많은 나라로서, 농업은 중국 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의 농촌인구는 농업이외에 다른 일로도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농민의 수입 중에서 농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2004년에는 전체 수입 중 농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8%밖에 되지 않았다. 농업 수입 중 농산물 수출을 통해 얻는 수입은 농업수입 중 1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의 확대와 농업경제발전의 촉진을 통해 농민수입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한·중 FTA체결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중요한 목표이자 원칙이다.

2) 한국 시장에서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은 주로 곡물, 수산물, 채소, 목화 및 유지류 등이다. 특히 곡물, 수산물, 채소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크고, 가격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과 생산원가는 중국의 생산원가의 10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농산물에 대해 관세 징수 및 비관세장벽과 같은 고도의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농산물은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07년에 한·미 FTA의 체결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농산물 무역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에 따라 중국의 농산물 수출량이 감소될 수 있다.

3) 협상을 통한 무역 분쟁 축소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농산물 무역 중에 ‘마늘분쟁’ 및 ‘김치무역마찰’ 등의 여러 분쟁을 겪었다. 한·중 농산물무역 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은 한국의 자국 농산물 보호정책이다. 양국의 협상을 통해 한·중 농산물자유무역이 원활해지면 무역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²³⁾

23) 오도, 중·한 FTA 협정이 중국의 농산물수출에 미치는 영향, 배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60.

2. 중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

중국 농업은 한국 농업보다 비교적 큰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한·중 FTA의 체결은 중국에게 더 유리하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중국 농산품이 한국 시장의 의존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 농산품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제5장 한·중 FTA에 따른 양국 농업의 대응방안

농업은 한·중 양국의 근간 산업이다. 특히 한국에게 농업은 가장 예민한 생산 부문이다. 농산품 수입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피하고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은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농산물 대외 무역 정책 중에서 비교적 강한 무역장벽을 세운 것과 가격과 생산 두 가지 면에서 농업 생산에 대해서 크게 지원하였다. 하지만 농산물 국제무역자유화의 발전에 따라, 특히 우루과이 회담 후에 한국의 농산물 무역장벽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 FTA의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농산물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 농민은 농업 개방에 대한 반발이 매우 심하다. 그리고 중국과 FTA의 체결에 대한 초기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 중국 농산물이 대량 유입을 우려한 일부 전문가들은 한·중 FTA의 체결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한 때 농업 부문이 정예한 대립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농산물 무역의 시각으로 한·중 FTA는 실행 가능성과 FTA는 한·중 양국, 특히 한국 농산물 무역 미래에 발전 추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1절 한·중 농산물 무역의 미래 발전 추세

한·중 양국 농산물 무역의 현황과 발전 추세로 보면 양국 농산물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에게 중요한 농산물 수출국이며, 또한 중국은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이다. 중국은 한국으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야채 및 야채 과일 가공품, 옥수수 및 곡물 가공품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은 중국으로 주로 수산물, 그리고 기타 식품 등 다른 종류의 농산물 및 곡물 가공품과 과일 등을 수출한다. 양국이 수출 주요 농산물의 종류를 분석해보면 농산물은 전체적으로 보완성이 있다. 일정 부분 중복된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면 수산물, 곡물 가공품 등, 같은 종류의 농산물이라도 차별화되어 있다.

한·중 농산물에 대한 추산에 의하면 양국은 농산물의 큰 부류 면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중국 수산물의 수출 비교 우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원예 상품은 비교적 강한 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가하면 다른 농산물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양식과 식용유 제품의 수출은 이미 수출 비교 우위를 잃었다. 한국은 비록 수출 비교우위에서 부족한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농산물 무역상 상호보완적인데, 예를 들면 중국은 한국으로 옥수수, 야채 등을 수출하며 한국은 중국으로 설탕 및 설탕 제품 등 기타 항목의 농산물을 수출한다. 만약 양국이 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양국은 동시에 수출과 수입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입에 의존하고 중국은 수출에 집중한다. 요컨대 한·중 양국은 비교 우세를 갖추고 있는 상품이 다르지만 양국의 농산물 무역은 산업 간의 무역과 산업 내의 무역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양국의 농산물 무역은 공동 협력의 소지가 있다. 즉, 한·중 양국이 농산물 무역 면에서 갈수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은 농산물 무역 면에서 한국에게 의존도가 더 높으며, 그 수지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두 나라 사이에 농산품 무역이 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중 양국은 상대방국에 수출한 농산물 이 같은 시기에 두 나라가 국제시장에 수입 분량보다 높으며, 이것은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농산물 무역 물량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농산물 물량보다 많기 때문에 농산물 무역 면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에게 더 중요하다. 그 중에서 야채, 기타 동물 상품 등 몇 가지 종류에 잠재적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농산물의 무역 연계성이 아직 밀접하지 않는데, 여전히 양국 농산물 무역의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다.

제2절 한국의 농산물 무역 대응방안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은 최근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일뿐만 아니라 지리

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한·중 경제협력은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되는 시대에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상대국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뿐이다. 양국은 경쟁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상호이익 전략을 통하여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리한 요소들은 최소화하여 공동으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농업은 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조건, 높은 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능력, 정부의 농업투자 의지, 우수한 농업인력 등이 강점인 반면, 협소한 경지면적과 영세농 구조, 고비용 체제는 커다란 약점이다. 기회요인으로는 내수시장의 성장과 일본 등으로의 수출확대, 그리고 위협요인으로는 중국 농산물과의 경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중국내에서 시장개척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국 국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중국의 틈새시장을 이용하면 대 중국 수출확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중국 농산물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농산물 생산은 전반적인 수급 균형이 이루어졌지만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은 아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고소득층이 형성되었다. 중국 13억 인구 가운데서 5%에 가까운 고소득층은 가격보다 질을 추구하고 있어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진출이 유리해 지고 있다. 그 밖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식생활에 변화가 일어나 곡물 소비가 줄어들고 특히 과일 주스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채소 가운데서도 신선 채소류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동시에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뀔에 따라 편의성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한·중 농산물 무역의 산업 내 무역 가능성이 증가 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산업 내 무역을 촉진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대 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로 중국의 대도시 부유층과 중산층을 겨냥한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을 증진시켜 농업부문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은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의 여러 가지 변화를 활용하여 틈새시장을 발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

적인 조치에 대한 분석과 수출전략을 통하여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²⁴⁾

1.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의 발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농산물 시장 조사를 통해 중국의 식품소비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은 농산물의 수요에서 가격보다 품질과 맛을 중요시하는 중국의 부유층과 중산층을 타겟으로 정해야 하고 대부분의 부유층과 중산층이 살고 있는 대도시를 전략적으로 홍보와 판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채널을 통한 TV광고를 활용하면 중국 전역에서 큰 홍보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대도시의 판매에서 대형마트의 진입을 통한 판매경로의 확보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이런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유망품목은 고품질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동시에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한국 원산지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식품안전검사의 협력체계 구축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토로 인해 지역 및 성별로 농업적 성격이 다양하므로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을 증진시켜 농업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가 이어지면서 한국은 저렴한 농산물의 대 중국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안전성은 한·중 두 나라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농산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며 중국입장에서는 농산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출에 걸림돌이 되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식품안전검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동식물 검역 및 식품검사 제도를

²⁴⁾풍언걸, 한·중 농산물 무역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62-66

무역장벽의 하나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품안전검사협력의 하나로 한국은 중국에 식품안전 센터를 직접 설립하여 중국 내에서 검사하고 인증하여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국 정보와 협력을 강화하여 무역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농외소득 증대

한·중 FTA의 수립에 대한 민감한 문제는 농산물 통상 문제다. 농산물 무역 문제가 민감하게 된 이유는 한국 농업 경쟁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 자유 무역은 농업에 엄청난 충격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한국 농민들의 이익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농민들은 FTA에 반대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농민들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중 FTA체결이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악영향은 최선을 다해서 축소해야 한다. 농민들의 소득은 보통 두 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농업 소득과 농외소득이다. 현재 한국 농민들은 농가소득 위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농민의 농외소득이 낮은 편이다. 현재 한국 농민들의 농업 외 소득이 전체 농민 총 소득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농민들의 농업 외 소득은 농민의 총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한국 농민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 소득이 쌀 소득이기 때문에 한국 농민들은 FTA 체결 과정에서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발해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다. 정부가 자국 농업에 재정 보조금과 농업 생존 정책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있다. 이런 정책이 존재한 한국 농민들이 산업 구조조정의 절박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 산업 구조조정 없이도 자신의 경쟁력 유지하고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농민에게 단기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런 조치는 당분간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지만 이런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 산업 구조 조정을 저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무분별한 보조금 보다는 농민의 의식 개선 및 농업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중국의 농산물 무역 대응방안

비록 중국 농업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 비용이 낮기 때문에 한국 농산물 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강점은 뚜렷하지 않다. 2007년과 2008년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중국은 적자 행진은 바로 이 문제를 드러낸다. 한·중 FTA를 체결 한 뒤에 새로운 국면을 대응하기 위해 중국 농업과 농산물의 경쟁을 유지하고 한층 높이려고 하면 중국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할 때 중국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1. 기술 장벽

WTO의 노력으로 다변화 라운드 협상은 이미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농산물을 포함한 여러 제품 관세율이 많이 낮추었으나 전통적 보호무역은 줄어들어는 동시에 각종 음성적 무역보호 정책의 사용이 빈번해졌다. 음성적 무역보호 조치의 사용은 농산물 국제 무역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데, 수입 농산물의 품질기준을 자국의 건강 안전을 보호하고 자국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유형을 도입 수입에 대단히 엄격한 까다로운 기준을 사용해서 수입 농산물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한다. 반면 중국 농산물은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표준화 수준이 높지 않다. 지금 이용하는 표준이 국제 통행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열성 보호무역 조치에 빈번하게 피해를 받았다. 그러므로 한·중 FTA 체결은 농산물 자체의 질과 품질을 키우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각종 열성 무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 해야 할 것이다.

2. 농산물 안전성

중국 농산물 기업들은 반드시 품질과 식품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고객과 사회에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효과적인 건전한 식품 품질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국제화 식품 안전 기준과 높은 식품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로 문제점을 발견할 때마다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업 과학 기술의 투자를 늘리고 생태 농업을 확대한다. 농산물 안전을 지키려면 원천에서 엄격히 검역하고 원시적인 농업을 종식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생산과 가공 방법을 추진한 생태에서 농업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직원들의 복지에 초점을 두고 교육시킨다면, 직원들은 생산과 품질 테스트와 통제의 각 고리에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도록 해야 된다. 직원들의 불만과 허술한 상태에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농업 표준화 생산을 보급하고 점차 국가 표준을 향상시키고 국제 기구와 연결해야 한다. 자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문제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으며,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업체를 현대화하여 제품 생산과 검증 기준 체계를 만든다면 안정성이 확보되어 중국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될 것이다.

3. 중국과 한국 간 농업 협력과 교류 강화

한·중 양국 간의 지난 마늘분쟁과 김치갈등 양국의 무역이 발전할수록 국가 간의 무역마찰과 분쟁이 더욱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게다가 그 관련된 영역, 제품의 종류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국제규칙에 의해 국외 투자자를 위해서 더 넓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창조해서 더욱 많은 국외자금, 선진적 기술과 관리 경험을 유도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의 그 역할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양국의 역할되는 입장이 변하고 있다. 새로운 정세의 발전과 변화를 더 많이 직면 할 것이며, 중국

정부와 모든 기업들은 더욱 국제경제와 무역에 발생한 각종의 새로운 문제와 변화에 관심을 가져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산물 분야에서도 강점을 융합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제6장 결론

한국과 중국이 2015년 6월 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중 수교 23년 만에 두 나라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두 나라는 한국의 국회비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를 FTA 발효 1년 차로 만들어야 관세철폐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맞춰 한중 정상은 친서를 교환했다. 상호 친서를 동시에 교환하고 주요 내용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 한·중 FTA가 처음이다. 이는 두 나라 정상이 한·중 FTA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농업 문제가 초민감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양국의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본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농업 분야는 한·중 FTA가 성립한 후에 단기적으로는 한국 농업에게 충격을 미치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은 농업 산업 구조를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정책적인 자원을 기본으로 자국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농산물, 의류 등 식품과 생활용품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타결된 FTA에 따라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해서 한국시장으로 중국 수출량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신선한 농산물 또한 이런 시류에 맞추어서 당일 안에 한국으로 운송하고 판매할 수 있다. FTA 체결 이전에는 비교적 낮은 생산원가와 저렴한 운송비용 등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한 시장경쟁력이 있고, 양국의 농업 발전 수준, 자연자원과 노동력 자원의 차이, 그리고 한국의 농업 보호 정책으로 인해 농업 관련 무역이 불규형을 이루었다. 하지만 한·중 FTA 구속 하에서 이런 문제들을 점점 사라질 수 있고 보다 더 자유로운 한·중 무역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화학제품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한·

중 FTA 체결 후 관세가 크게 줄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한·중 FTA 체결 후 한국은 중국에서 싼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어서 한국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도 농업 부분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농산물 수입의 증가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수입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오산이라 미로인하여 파생되는 다양한 현황 및 결과들은 우리가 미처 대처하기 전에 엄청난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이 국제 시장의 분업 체계 안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 체결은 양 국가에 말도 부문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농업 부분에서는 다양한 기체와 위협에 노출이 되어서 결과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FTA를 통한 시장 경제력 제고는 분명하나 산업적이 측면이 아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자.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FTA의 효과를 보다 사회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며, 이 전략 수립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 김병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우리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3-4.
- 김종성,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한·중 FTA 협상 및 향후전략, 부산대학교 동북아 지역혁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55.
- 김성철, '한·중 FTA 추진 현황 시사점', 수해외경, 8권 2호,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 경제연구소, 2011, pp.87-105.
-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 국제통상학회, 2007, p.146.
- 김규진, 한·중 FTA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38-40.
- 김정수,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 국제 통상학회, 2009, p.155.
- 만설진, 중·한 FTA 추진 및 쟁점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66-69.
- 명진호,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3년 전망-19개 경제권(68개국)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2013, p.2.
- 문한필·최세균·정대회, '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p.17.
- 박정석,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46.
- 박번순, 한·중 FTA의의와 주요쟁점, 삼성경제연구소, 2011, p.32.

- 박덕영 · 이주윤, '주요 FTA 분쟁 해결절차 규칙의 비교분석', 한국법제연구원, pp.177-196.
- 송위동, 자유무역협정이 중국의 농산물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력모형,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56-58.
- 서훈, 중·한 FTA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p.35-37.
- 선자, '중국의 FTA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7, pp.26-31.
- 오도, 중·한 FTA 협정이 중국의 농산물수출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60.
- 양경용, 한·중 FTA 추진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34.
- 이주량, 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R&D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p.8
- 이영광, '우리나라 FTA추진전략에 대한 소고',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제19호, pp.88~89.
- 이기성, 한·중 FTA 추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2010, pp.71-75.
- 이장규,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181.
- 어명근, 한·중 FTA 추진과 농업분야의 예상쟁점, 한·중 FTA 2차세미나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p23.
- 진병곤,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통일연구원, 2008, p.12.
- 조우균, 한·중 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에 관한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29-30.

- 전현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한·중 농산물교역, 연구보고, 2011, p.11.
- 정정길·리경호, '최근5년(2006-2010) 중국의 농산물 무역 동향과 전망',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12, pp.36-40.
- 지만수,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4.
- 쟁지완,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2007, p.71.
- 최승환·박언경·이상모, FTA 관련 주요 무역 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p.63.
- 포택문,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61.
- 현준, '동(북)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p.263-296.
- 홍상목,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p.20-22.
- 허홍호, '한·중 FTA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 경영사학, 제24권 제4호, 한국경영사학회, 2009, p.253.

<중국문헌>

- 金乐琴, “中韩两国互相直接投资: 挑战与对策”, 经济研究导刊, 2008年第11期, p.34.
- 李俊江, 范硕, “中韩农产品贸易自由化及其对策(上)”, 2007年第十二期, pp36-38.
- 李光辉, “通过合作来促进中韩经济贸易的发展”, 对外经贸大学出版社, 2007, p.3.

李华, 郭义等, “本期主题: 关注中韩贸易不平衡”, 经济论坛, 2008, pp.20-30.

马常娥, “中韩贸易逆差”, 黑龙江大学出版社, 2008.5. pp.33-45.

朴光姬, “中韩建交15年来双边贸易的发展及其存在的问题”, 当代亚太, 2007年 第7期, pp.23-30.

张汉林, “WTO主要成员贸易政策体系与对策研”, 经济科学出版社出版, 2009, p.34.

张颖, “对于中韩贸易关系的特征和对策研究, ” 商业现代化杂志, 2008, p.3.

孙霖, “关于中国贸易保护政策的政治限制研究”, 云南财经大学出版社, 2008, p.24.

刘新英, 中韩易贸易摩擦中的“大蒜事件”及其启示, 山东财经大学, 2005, pp.44-50.

张慧智, “中日韩自由贸易协定中的农产品贸易问题分析”, 现代中国经济, 2006, pp.28-33.

中国商务部, 中韩经贸关系发展现存问题及对策建议, 中国商务部国际经济贸易合作,

研究院课题组, 2009, p63-71.

“中国加入WTO以后, 中国贸易摩擦变得深化的原因和对策”, www.chinaknock.com.

“中国接受反倾销调查的现状”, 中国贸易规则协会, www.cacs.gov.cn.

《中韩双边贸易存在问题及其对策》

《中国仲裁法》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인터넷 자료>

<http://www.mofcom.gov.cn>(중국상무부)

<http://www.cacs.gov.cn>(중국무역구제협회)

<http://www.kolas.go.kr>(한국인정기구)

<http://www.customs.gov.cn> (중국관세정부)

<http://www.ktc.go.kr>(한국무역위원회)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http://www.standard.go.kr>(무역기술장벽정보)

<http://www.newsva.co.kr>(아시아경제신문)

<http://www.chinaknock.com> (UNI Trade)

<http://www.stats.gov.cn>(중국국가통계국)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12604(대전일보)

<http://www.fta.go.kr> (자유무역협정FTA)

<http://www.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fta.mofcom.gov.cn/>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on Korea and China' s Agricultural Trade

Luo Xing(罗杏/라 행)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trad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have become increasingly close. As members of the WTO are quite diverse, multilateral negotiations are not able to meet the interests of individual members ,which make it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Nowadays, more and more countries are in pursuit of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free trade area, namely FTA. There exist excellent conditions for China-Korea cooperation in terms of geographical position and resource complementarities. This thesis looks into China-Korea FTA, adopting the combination of literature research, empirical analysis and normative analysis. First of all, the

paper reviews the relevant theories, and then the feasibility of China-Korea FTA. The thesis focused on the potential impacts on Korea agricultu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FTA and policy responses for both China and Korea.

감사의 글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 그리고 저의 논문이 끊임없는 가르침과 항상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이용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영춘 교수님, 김희철 교수님, 라공우 교수님, 허윤석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던 선배님들과 후배들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본 논문을 보고 기뻐하실 보고 싶은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